

내년 국가예산 최대 확보 총력

김승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자동차 등 주력산업 체질개선·미래성장사업 동력확보 위해 쟁점사업 정부에 예산 반영 건의

전북도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체질 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기재부 주요 예산부서를 집중 공략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먼저 김 부지사는 기재부 박창환 복지예산과장을 방문하여 고령화 사회의 필수 조건인 노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집행 등을 전담총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컨트론타워 설립을 위한 '국립 노화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국비 3억원을 요청했다.

이어 기재부 이병연 문화예산과장을 찾은 자리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태권도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태권도 라카비움 구축'을 위한 2019년 국비 5억원, 태권도 공연콘텐츠 제작을 위한 국비 7억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 국비 232억원을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조인철 농림해양예산과장을 방문하여 문재인 정부 전북 지역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 사업'의 핵심사업인, '중자기업 공동 활용 종합 공정시설 구축' 5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부두시설 규모확대 등 국비 1,000억원, 전·남북 지역 노령산맥권 5개 시·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연계 활용한 '노

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조성' 국비 6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박준호 고용환경예산과장을 면담해 2023새만금세계제배리 대회와 연계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생태탐방 체험시설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원 반영, 미세먼지 전국 최고 농도인 전북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원인, 중국 등 국외영향 및 타 지역 오염물질

유입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자료구축을 위한 '전북권 대기오염 집중측정소 신설' 사업비 50억원과 현재 전국 보급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하수도 및 하수관거 보급률 개선을 위한 14개소 지역에 대한 국비 188억원이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전북도는 7월말까지 진행되는 2차 심의 기간 중, 19일 최정호 정부부지사, 23일 송하진 도지사가 잇달아 기

재부를 방문하는 등 주요 쟁점사업 반영을 위해 지휘부 등 도정 역량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최우선을 두고 총력 매진하고, 아울러 정치권과의 공조체계를 돈독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국회의원별 지역구 사업을 분류하여 방문설명하는 등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역할분담 공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시는 12일 전주동물원 내 휴게소 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전주동물원을 찾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사회적경제 플랫폼 '전주점빵' 개점식을 가졌다.

사회적경제, '전주점빵'에서 시민과 함께 키운다

전주시, 전주동물원에 플랫폼 개점식

전주동물원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과 서비스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매출 향상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착한경제인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내 휴게소 공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사회적경제 관계자, 전주동물원을 찾은 시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사회적경제 플랫폼 '전주점빵'

개점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전주점빵'은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 확대를 도모하고 시민들과 가깝게 호흡하며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전주점빵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자활사업단이 입점해 식당과 카페, 물품 판매점을 운영하게 된다. 또, △사회적경제 관련 책자와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소개한 책자,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생산품이 비치되어 있는 전시 공간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회의실 △관람객 편의시설인

수유실과 화장실도 마련돼 사회적경제조직 상품 홍보와 판매를 위한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점빵 내부 상점은 사회적경제조직 중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오래된소나무협동조합과 전주지역자활사업단 담다, (사)자연음식문화원의 3개 기업이 입점해 운영을 맡게 된다.

시는 향후 '전주점빵'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의를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운영해나갈 계획이며 동시에,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연대의 발판이자, 시민들에게 한결 더 다가갈 수 있는 소통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 한우 '남우(男牛)주연상'

도 축산시험장 육성 '천년전북 1호' 보증씨수소로 인정받아

전북 한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증씨수소로 인정받으며 전북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다.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장장 김용수)이 생산한 한우 '천년전북 1호(KPNI222)'가 국가 보증씨수소로 선발되면서 우량종자 보급으로 도내 한우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킬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7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는 총 26두의 후보씨수소 중 14두를 보증씨수소로 선발했다. 이로써 전체 보증씨수소는 125두가 됐다.

일명 '한우 정자왕'으로 불리는 보증씨수소는 전국 암소에게 정액을 공급하게 된다. 4년여에 걸친 까다로운 검정 절차를 통해 자손을 평가,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보증씨수소로 선발될 수 있다.

'천년전북 1호'는 보증씨수소로 선정

된 14두 중 2등으로 선발되어 유전능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보증 씨수소 125두 중 19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년전북 1호' 자손의 경우 도축한 가축 무게를 가리키는 도체중이 한우 전체 평균보다 약 37kg가 더 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 또한 한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천년전북 1호'를 비롯한 보증씨수소의 정액은 오는 8월부터 농가에 공급될 예정으로, 전북도는 '천년전북 1호'가 생산한 정액의 50%를 우선구매할 수 있다.

축산시험장은 도와 시·군 한우협회와 정액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해 도내 한우농가에 '천년전북 1호'의 정액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우수기관 선정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공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혁신사례 공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206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전북도는 소방본부의 '고속도로 특화형 119출동시스템 개발' 사업으로 응모한 결과 창의성, 실효성에서 좋은 평가

를 받아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고속도로 특화형 119출동시스템 개발 사업은 고속도로 IC, 상하행선, 터널 등 주요정보를 도식화하여 119상황실에서 고속도로 사고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구간의 CCTV 및 교통상황 정보를 연계해 최적경로에 있는 119출동대를 자동 편성하여 현장 도착시간을 크게 단축함으로써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익산 국가산단내 호텔컨벤션 공사 공정률 70% 넘어

익산 국가산단내에 짓고 있는 호텔컨벤션 건립공사가 공정률 70%를 웃돌고 있어 전국제전 개최전에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 호텔컨벤션 건립에는 국가 정책펀드 예산 220억을 포함 모두 530억원이 투입된다.

호텔컨벤션 시행사인 <유>웨스턴리아프콘소시엄측은 "제99회 전국제전 전에 오픈을 목표로 인력 및 장비를 집중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현장은 현재 골조공사를 끝내고 외벽마감 및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호텔 관계자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돌발변수가 없는 한 10월 1일 그랜드 오픈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현재 사전 숙박 예약 문의를 받고 ?

있다"고 밝혔다.

4성급 규모인 이 호텔컨벤션 건립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지하 1층 지상 11층에 161실의 객실과 9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 호텔컨벤션이 건립될 경우 관광 숙박 인프라 확충으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뿐 아니라 공단 바이어에게 도움을 주는 등 지역 이미지가 고양될 전망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